

시각장애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책'

시각에 의존하는 정보형태는 무용지물... 출판에 배려 있어야

조근태

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

1930년대 박두성에 의한 한글점자 창제 이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점자는 가장 유효한 기록수단이다. 80년대까지 점자는 문명세계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으며 점자도서의 중요성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자는 오랜기간 축적되어온 연륜이나 유일한 기록수단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휴대와 독서속도, 대량유통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반적으로 목자(점자가 아닌 모든 문자를 이렇게 지칭한다)를 점자로 번역하면 문서의 부피는 최소한 두배에서 세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일반 서적용지보다 두꺼운 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점자의 특성상(점자는 요철로 표기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이와 비교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부피문제는 점자도서의 휴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점자는 편이성에 있어서도 다른 수단에 비하여 불편하기 그지없다. 점자의 인지는 대개 손가락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같은 독서 양식은 독서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차 점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편이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점자도서는 대량생산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인쇄기 등의 발달로 대량생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어렵다. 지금까지도 점자 인쇄방식이 연판에 점자를 찍고 그 사이에 종이를 끼워 종이에 요철을 표기하는 원시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자도서의 대량유통은 장애 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점자는 뛰어난 기록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같은 강점은 다른 정보습득 수단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전문서적 등은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컴퓨터 출판체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유효한 문자수단으로 인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녹음도서는 점자의 제한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80년대부터 유행처럼 불어닥치기 시작한 녹음도서 제작은 책을 그대로 읽어 녹음한 이후 대량복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과 아울러 휴대용 녹음기만 있으면 언제든 도서와 접할 수 있어 휴대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녹음도서는 이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녹음이라는 제작 방식으로 인해 아직은 문학류 같은 제한적인 도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시각장애인에게 '책'이란 무용지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습득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점자도서, 녹음도서, 컴퓨터통신 등이 있으나 그 점역작업은 철저하게 수작업과 자원활동자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출판계에서도 20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다.



천호동에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점자도서를 만드는 과정.

밖에 없었다. 또한 신속을 요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녹음테이프가 지닌 단점이다. 더욱이 일반 녹음테이프가 보존이 필요한 자료나 검색이 필요한 자료의 수록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녹음도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전달 방식의 다양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다른 도서 양식으로 부각된 것은 전화사서함 등 음성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케인즈 다이얼'과 '중달새 소리', '음성정보 서비스' 등이 있다. 대개 신문 등을 입력

해 전화로 기사를 확인하는 음성정보 서비스는 신속성을 요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에 알맞은 방법으로 지적된다.

마지막 방식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은 향후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방식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중인 과정에 있어 대중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달 방식의 다양한 접근과는 별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한일 전쟁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연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톡톡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까딱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연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이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평가: 6,000원



장애인을 위한 출판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진은 점자도서로 책을 읽고 있는 시각장애인.

개로 정보의 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달방식의 다양한 접근법과는 달리 절대적인 빈약성을 보이고 있다. 정보 총량의 부족현상을 지켜보면서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법이 아직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최초의 점자도서관으로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는 한국점자도서관은 현재 1만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 26년간의 작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점자도서관의 이러한 장서 규모를 일반 도서관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

준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별로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유보조항으로 점자번역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조항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결과물은 미흡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점역작업(점자로 번역하는 작업을 점역이라 한다)이 철저하게 수작업에 의존해왔고 도서의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점은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컴퓨터 점역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활성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또한 입력작업이 전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구나 정부의 점자도서관 설립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으로 도서관 설립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점역작업이나 녹음작업의 대부분이 자원활동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녹음도서 제작의 경우 한사람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대략 40~50페이지 정도이고 따라서 2백50페이지 분량의 책을 녹음하는 데는 평균잡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결국 1년에 한사람이 전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녹음도서는 50여권에 불과하다.

점자도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점자도서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입력과 점자프린터를 통한 제작은 보통 한사람이 하루 60~70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책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입력하면 시간은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점자프린터가 있는 경우에 한한 이야기이고 점자프린터가 없으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용 점자프린터의 가격이 천만원대에 육박하고 점자도서관에서 원판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점자프린터의 경우 1억원을 호가한다는 현실에서 점역작업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도 입력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개의 도서관은 이러한 점역과 입력작업을 자원활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자원활동자 관리비는 예산항목에 잡혀 있지도 않아 담당자들의 가벼운 호주머니에서 항상 이들의 관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출판의 배려가 필요

일반적으로 출판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지 책을 발행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0만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존을 위해서 출판계의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책임을 출판이 지고갈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한 배려를 위한 연계나 협조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전에 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점자도서관에 원고디스켓을 제공한 일이 있었다. 점자도서관은 책을 입력하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시간을 절감했고 얼마후 그 책은 점자도서로 제작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의 내용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실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구독료 안내 (주1회 발행)
6개월 12만 원
12개월 20만 원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 271-0494
Fax (02) 271-0495

명목가치 20만원, 실물가치 20만원, 효용가치 200만원
검색프로그램만으로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판정보」는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국 저널의 출판관련 기사와 광고를 수록할뿐만 아니라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4개 신문의 구독료나 스크랩하는 인건비 정도의 회비로 받아볼수 있는 「출판정보」는 체계화된 정보를 한꺼번에 편안히 앉아서 받아볼수 있는 장점외에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제공되는 「출판정보」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 (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지금 궁금하신 분은 바로 연락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드립니다.